

(주)트루라이프 · 서부사료(주)

임직원 워크숍 실시



초일류식품종합그룹 비전 달성을 위한 2007년 (주)트루라이프 · 서부사료(주)대표이사 정세진 워크숍이 지난 10월 19~20일 이틀에 걸쳐 경기도 김포시 효원 연수문화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워크숍은 초일류식품종합그룹에 대한 마인드 고취 및 비전을 공유하고, 자유로운 토론의 장으로 각 팀 및 구성원간의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도모하는 자리였다.

무엇보다 '고객의 만족과 가치실현 방안'에 대해 초점이 맞춰진 이번 워크숍은 ▲사전행사 ▲분임토의 ▲전체토론 ▲단합의 장 순서로 진행됐으며, 특히 분임토의에서는 구성원들의 열띤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

정세진 대표이사는 격려사를 통해 "이번 워크숍은 초일류식품종합그룹 조기실현을 위한 장으로 우리 모두는 고객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가치를 제공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트루라이프 식품사업팀 워크숍 개최



(주)트루라이프는 지난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에 위치한 회의장에서 식품사업팀 워크숍을 개최했다.

2007년을 되돌아보고 2008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서 정삼수 식품사업팀장은 "당사 식품사업의 비즈니스모델은 시장자체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식품사업팀 워크숍은 향후 일년에 1회 이상 개최될 예정이다.

(주)홀랄라

추계 친목연수캠프 개최

(주)홀랄라대표이사 김병갑은 지난 10월 21일 강원도 횡성소재 호수파크밸리에서 임직원, 가맹점 지원부



서 40여명과 함께 추계 친목연수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캠프는 그동안 다수 직원이 참가하는 형식에서 벗어나 극기체험을 통한 자기 인내심의 중요성 및 도전정신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해 조직 활성화와 문제해결능력을 게임방식으로 진행, 미션해결을 위한 참여의식 유도 및 신뢰감 형성에 중점을 두어 진행됐다.

이날 김병갑 대표이사는 참석한 임직원과 신입사원에게 중국 진출을 위한 새로운 도전과 도약에 필요한 인재가 되어 줄 것과 끊임없는 노력과 함께 새로운 도전인 중국 진출과 세계화를 위해 글로벌 마인드로 무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주)홀랄라는 맛을 창조하는 미래경영, 함께 하는 공동체 경영, 고객만족의 감동경영을 토대로 2009년 대한민국 넘버원 바비큐치킨을 넘어 중국시장을 기반으로 2010년까지 글로벌 프랜차이즈 업체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주)우성사료

2007 우성한마음축제 행사 개최

(주)우성사료(대표이사 지평은)는 지난 10월 3일 대전에 위치한 한남대학교 종합운동장에서 '2007 우성한마음축제'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02년 우성사료 창립 35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이후 2년마다 실시하는 체육행사로서 그 동안 임직원들의 노고에 대한 보답과 우성 가족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마련하게 된 자리다.

이번 행사에는 우성사료뿐만 아니라 우성양행, 우성운수 등 협력회사 임직원들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개 팀으로 나눠 열띤 응원전과 함께 다양하고 다채로운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Vision 111, Try Again'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베트남에 이은 중국진출을 통한 성공적인 세계화를 다지고 있으며, 2008년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지는 측면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대단히 뜻 깊은 자리이며, 우성사료 특유의 전통과 저력을 보여준 행사였다.

(주)우성사료는 39년 동안 오직 배합사료분야 한 우물을 고집해온 축산전문기업으로서 축산농가의 수익성과 생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나아가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한다는 사명감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사료브랜드로 성장해 나갈 것임을 임직원 모두가 다짐하고 또한 최근 어려운 축산현실 속에서 늘 축산인과 기쁨과 고통을 나누는 기업으로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거듭할 것을 약속하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되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주)우성사료는 임직원간 상호 교감을 통한 수평적이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좋은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는 물론 전임직원들이 하나된 목표를 향해 응집된 강한 힘을 모을 수 있었던 뜻 깊은 행사가 되었다. 

Show & Show 컨셉의 종합식품전, 'Food Week 2007' 오는 11월 2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

하반기 국내 최대 규모 식품산업전시회인 'Food Week 2007'이 오는 11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삼성동 서울 코엑스 태평양, 인도양홀에서 개최된다.

'Food Week 2007'은 그동안 전문성을 가지고 개최되었던 '국제조리기계전', '서울쌀박람회 및 발효식품전', '김치엑스포', '호텔 & 레스토랑 산업전', '국제식품박람회', '국제농수축산물전시회', '식품포장전', '경기우수농산물명품전', '제주수산물전' 등 8개 전문 전시회가 통합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는 총 400여 업체, 700부스 규모로 개최되며,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입장료는 3,000원(인터넷 사전등록 시 무료입장 가능, www.foodweek.co.kr 참조).

이 중 4개 주요 전시회를 소개한다.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는 프리미엄 라이프

2007 국제식품박람회(Int'l Food Fair 2007)

최고의 식품전문전시회로 도약하는 2007 국제식품박람회가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는 프리미엄 라이프'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친환경을 생각하며 건강하고 신선한 식품을 소개하는 이번 전시회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인 친환경 유기농식품 및 건강기능성 식품과 탁월한 품질의 우수식품들이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해외 각국의 음식문화를 선보이는 해외관을 마련해 국제화 전시회를 지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참관객에게는 품격있는 식품문화를 체험하는 기회의 장을, 참관객에게는 식품전문 마케팅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농수축산물의 대표브랜드가 한자리에!

2007 국제농수축산물전시회

'프리미엄 브랜드전'을 표방한 국제농수축산물전시회는 각 지역의 대표 브랜드 농수축산물을 한자리에 만나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각종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타계하기 위해 각 지역에서는 농수축산물의 브랜드화를 통해 유통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와 양질의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각 지역 최고의 브랜드들이 참가하는 본 행사를 통해 참관객들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양질의 농수축산물을 만나볼 수 있고 참가업체 또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통한 매출액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화려한 테이블, 매혹적인 만찬

2007 호텔 & 레스토랑 산업전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호텔, 레스토랑산업은 식생활 뿐만 아니라 현재의 문화 코드를 가능해 볼 수 있는 잣대이다. 이러한 점에서 호텔 & 레스토랑 산업전은 현재의 식생활문화뿐 아니라 관련설비, 시스템 등이 변해가는 트렌드를 고찰해보며 미래를 예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변화하는 사회, 경제, 문화적 요인과 더불어 발전하는 호텔 & 레스토랑의 문화를 선보이는 이번 전시회는 국내 유일의 호텔, 레스토랑관련 전문 전시회로 레저관광업, 급식, 케이터링 서비스 등과 관련된 종사자 및 기업에게 놓치지 말아야 할 행사로 자리 매김될 것이다.

식품 포장의 새로운 변화를 꿈꾼다!

2007 국제식품포장전(Food Packaging Machinery Exhibition 2007)

식품의 차별화가 강화되고 맛의 다양함이 추구되면서 식품 포장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식품 포장의 최근 동향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2007 국제식품포장전'은 독특하고 환경친화적인 우수한 품질의 식품 포장을 선보일 예정이다.